

시 김옥수

매화꽃 전설

하얀 눈발 속에서
눈부신 매화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긴 겨울 칼바람도
캄캄한 긴 밤도 참아내고
따사한 햇살을 맞으며 수줍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 옛날 숨겨둔 아픔의 전설을 전하듯
수많은 밤과 낮의 사연을 조용히 이야기 시작한다
세찬 눈보라가 고마운 스승이었다고
오늘의 예쁜 꽃을 맺는데



약력

- ▲ '현대문예' 등단
- ▲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
- ▲ 밝은마음가족상담센터 대표



시 박은영

광주 찬가(讚歌)

무등이 수놓은 곳곳한 산자락에
사방팔방을 선물처럼 식탁보 깔았다네
민주 등불 걸어놓은 청정 자연 빛 밝은 고을이여
그리움도 가득가득 기다림도 가득가득
하늘이 내린 터전 내가 자란 빛고을 광주
웅기종기 모여 사는 우리 이웃은 따뜻하다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북한 밥 한 사발
사랑의 꽃향기는 만국기처럼 필적이고
응원의 북소리 둥 둥 울린다
심장 같은 광주전에 웃음소리 흘러가고
오가는 매일 매일이 한 폭의 산수화다
아시아의 지역문화 명예마져 찬연하다
유랑한 시국이여 금남로를 불 밝혀라
신재벽이 물고 오는 무등의 천황봉은
가슴 가슴이 장엄하다 우리 모두 우뚝하다
짜깁짜깁 돌아가는 천하제일 광주여
평화가 일상이 된 내 사랑 빛, 광주
너와 나 한 몸 되어 혼연하다 아름답다.



약력

- ▲ 시인, 수필가
- ▲ (사)동행 문학지교 나눔공동체 대표
- ▲ YWCA 시와 낭송 지도강사
- ▲ 평교원, 시민강사



시 허소미

백색소음의 그늘에 들다

지휘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산의 객석은 꼭 차 있다
무수한 나뭇가지들 사이사이
플래시 비쳐 들듯
은총 같은 햇살들이 내리쬐고
일체의 오욕 덩어리
오장육부를 씻어내는 듯한
계곡물 함창 소리
코러스로 따라 드는
배짱배짱 새소리
청량한 숲의 화음에
당나귀 귀
빨대처럼 꽃고
차마 객석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몸
고요히 마음 간추리며
다프네처럼 한 그루
나무옷 입고
숲과 하나가 되어
보이지 않는 지휘의 물살을 탄다



약력

- ▲ '한국시' 등단, '문학춘추' 시와 평론 등단
- ▲ 한국문협 회원, 광주문협 평론분과위원장
- ▲ 시집: '먼 먼 나무' 외 1권, 동인지 다수
- ▲ 평론집: '반추와 존재론적 형이상학에 대한 통찰'



수필 김양화

청포도와 이육사 순국지

광복절이 방학 중이라 학생들에게 '8.15 광복' 이야기를 미리 해주다가 이육사 문학관도 소개했다. 도산서원과 가까운 문학관 입구에서 청포도가 싱그럽게 익어갈 거라고 하니, 장애 학생들의 눈빛이 포도알처럼 빛났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중략 ...아이야 우리 식탁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학생들은 '청포도' 시를 낭송한 후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색의 느낌을 공감하고, 청포도 밀그림에 색칠도 하며 이육사 시인의 독립 정신을 기렸다. 잘 단장된 문학관 주변으로 청포도 넝쿨이 탐스럽게 뻗어간 영상을 보니,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인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민족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인 이육사(1904-1944) 님이 순국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다. 그곳은 베이징의 명동으로 불리는 왕푸징에서 1.5km 떨어진 동창후통 2호이다.

재중항일역사 기념사업회 관계자에 의하면, 작년 초부터 이곳 입구에 안면인식 출입장치가 설치돼 외부인의 방문이 어려워졌다. 일본 헌병대가 1937년부터 일제 패망 직전까지 감옥시설로 사용했던 벽돌로 지어진 일제식 2층 건물이 중국식 회색 콘크리트 건물로 리모델링 되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잠금장치가 없어 지하 감옥으로 사용된 내부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젠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시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공간인데,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추모할 수 없을뿐더러 순국자의 자취조차 사라져가니 안타깝다.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김희곤 지음, 지영사)에 의하면, 시인은 1943년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인데,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익어간다. 그리고 곧 일본도 끝난다."

청포도가 익듯 우리 민족이 익어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조국 광복에 투신하며 감옥 수인번호 '264'가 필명이 된 이육사 시인!

시인은 17년 동안 17번 투옥되며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결정적 증거를 잡지 않은 채 독립운동을 지속하던 중 1943년에는 베이징으로 가서 국내 무기 반입계획을 세웠지만, 경성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베이징으로 압송돼 1944년 1월 16일 새벽, 동창후통 2호의 차가운 감옥에서 서거하였다. 그토록 고초를 겪으셨으니 두 손을 함뿍 적시고 청포도를 따 드시며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오죽 좋았을까.

이육사 순국지가 자리한 일제 시설물은 중국의 많은 항일지사가 고초를 겪은 현장이라는 점에서 중국 내 역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찍부터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되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 관계자들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에서 이육사 순국지를 소개하며 '주변 지역 개발로 절거 등이 우려되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해 왔다.

관계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지하 감옥으로 추정되는 증거인 오래된 쇠창살 등도 모두 철거되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후에도 80년 가까이 원형을 유지해 온 건물인데,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결국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철거되면 독립운동사적지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협의해 독립운동사적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작은 표지판을 동창후통 2호에 꼭 설치해야 하겠다.

광복절이 가까워지는 만큼 청포도도 익어가는 시절, 이육사 순국지를 돌아볼 일이다. 아울러 여름 장맛비로 인한 산사태 및 각종 피해를 염려하는 요즘, 이육사 시인처럼 생명력과 희망이 충만한 청포도를 마음에 그리며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약력

- ▲ 평화신문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한국문인 수필 등단, 천강문학상 동화 수상
- ▲ 수필집: '사랑엔 장애가 없다'
- ▲ 동시집: '매뚜기 교실', '숲의 초인종'
- ▲ 광주선유학교 특수교사 재직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